고은 불교대하소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세 사람의 무욕도는.

날마다 앞으로는 바다요 뒤로는 모든 바다 위 파도소리의 일부가 부딪치는 섬의 바위와 용기종기 다부지게 견디어낸 나무들이었다.

차츰 이 섬에도 강렬한 여름 햇볕이 내리꽂히는 그런 시절인데 요즘은 한낮의 그런 현상과는 달리 해가 질 무렵은 갑작스럽게 바다안개가 낙조를 대신 차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차례 가벼운 지진이 지나갔다. 지붕이 좀 흔들려서 재작년의 이엉 쪽 억새묶음이 풀썩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것 밖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인담이 슬쩍 조는데도 그 졸음을 깨우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도 한동안 태평성대와 같은 평온으로 에워쌓인 이 섬에서도 이따금 이양선(異樣船)이 지나가는 광경을 멀리 내다보게 되었다. 그 배들은 청나라 배나 왜국 수적(水賊)의 배와는 그 규모가 월등한 것이다. 으리으리한 돛대가 세개나 솟아있고 그 아래로는 선복마다 대포가 설치되고 선체도 나무가 아니라 시꺼먼 철관으로 된 것이었다. 화통에서는 시꺼먼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아무리 사나운 파도라도 마치 그런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것처럼 항진하는 것이었다.

벌써 40여년전부터 이런 이양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정작 무욕도 앞바다를 지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과연 인담이 지난번 서하문집 간행 때문에 육지에 건너갔다가 제주도에 영국의 함선이 닻을 내리고 제주도 돼지들을 몽땅 잡아갔다는 소문도 들은 바 있다.

아무래도 인담은 한번 더 건너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이 났다. 멀리 지나가는 이양선을 우녀 소석들도 보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청나라 배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뜻이 입을 열자마자 그런 말로 된 셈인가.

요즘 인담은 스승 담인을 꿈속에서 만난 이래 제대로 수행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입정(入定) 때에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다.

물 건너 세상

"잠자거나 조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인을 생각하구려. 잠이나 자려거든 옛날 동해 낙산사 중 조신(調信)이 잠들었다가 꾸는 꿈속이 차라리 나으리."

이런 말을 지난 날의 수원과 수월을 꾸짖으며 했던 인담이 아니던가. 잠이 없는 인담에게 자꾸 잠이 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기야 그 잠 때문에 스승을 꿈속에서 만나뵐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며칠 뒤 인담이 우녀에게 말하였다.

"건너갔다 오겠오. 세상 형편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또 풍랑을 만나면 어쩌시려고요. 호호."

"아무튼 궁금한 세월이오."

"누가 말리던가요. 다녀오세요. 이제 우리에게도 철선 한 척이 있어야지…겨우 때배나 낙배따위로 다니다니요. 호호."

인담이 섬에 남아있던 낡은 낙배 한 척을 단단히 묶어두었다가 밧줄을 끌러 타고 육지로 건너갔다. 사흘 말미였으나 닷새만에 그는 후줄그레해져서 돌아왔다. 무사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인데 곡식과 몇가지 긴요한 것들도 실어온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는 사학(邪學)이 백성사이에 은밀히 퍼져가고 있고 사학뿐 아니라 괴질도 퍼져가며 많은 목숨을 앗아간다 하였다.

사학은 주로 청나라 쪽에서 배로 건너오는데 그들의 배후에 이양선의 함이 있다 하였다. 그런 이양선은 불란서의 것이고 그것과는 달리 영국의 철선은 조선 서해안의 이곳저곳을 측량까지 해간다는 것이었다.

또 인담은 그가 서산과 합덕 일대를 다녀오는 길 위에는 송장들이 한 무더기씩 쌓여 있으나 누구 하나 그것들을 묻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한다.

그뿐이 아니었다. 인담도 서산 신도로부터 받은 엽전 한 꾸러미를 그 아래 꺽정재에서 지키고 있던 도적떼에게 빼앗겼다 한다. 그 도적 가운데는 한양의 망나니도 하나 끼어있어서 그에게 걸리면 영낙없이 목이 날아간다 하였다.

우녀들로서는 마치 옛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그 흉흉한 세상에 대한 실감이 없었다. 섬의 생활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아니 그들의 수행 자체가 세상에 대한 실감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세월이 오는 것 같은데…충청도지방 유림(儒林)에서 엄금하는 양명학(陽明學)이 젊은 선비들 사이에 퍼지고 있고 백성들은 사학에 사로잡혀 있고…사학이라 하지만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그것을 전하고 받는 일이 마치 무덤 속의 일 같아서 포졸들의 사나운 기찰도 잘 피하는 모양이오. 우리 불법도 그동안 유학에 배척받은 바 된지 몇백년인데 이로부터 새로운 세월에 나아갈 채비를 해야겠습니다."

인담은 아직 풋나기인 소석까지도 들으라고 우녀에게만 가만히 말하지 않고 목청을 높였다.

아무렇지 않던 낮에 갑작스러운 먹구름장이 몰려와 번개와 천둥으로 위협하고 세찬 소낙비로 바다와 섬을 두들겨 패는 일까지도 인담의 말을 반영하는 것인양 처절한 지경이었다.

우녀가 다른 말에는 관심을 아끼다가도 길 가의 송장 얘기에 대해서만은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무지 이 나라는 이제 나라가 아닙니다. 길 가의 송장 칠 사람이 없다면 그 나라는 필시 전쟁중이 아니면 멸망한 것이 아닙니까?"

"邪學이 은밀히 퍼지고 괴질이 돌아 민심이 흉흉하니 우리 불법도 새로운 세월에 나아갈…"

그렇게 인담과 우녀는 터럭 하나도 서로 익숙한 바였다.

"나 당분간 쉬겠소. 우녀님께서나 소석이하고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던지 범어리 염불—참선—을 하던지 하구려."

"정녕 화상께서는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난 것입니다. 내가 낫게 할 법력(法力)이 없으니 그대로 둘 수 밖에요."

"왜 그런 법력이 없겠오. 그러나 나를 내버려두구려."

들처럼 팽팽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잔물결인들 그 작은 소리들을 안개가 빨아들임으로써 그 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일까.

이런 때는 바다속의 고기들도 바다위의 사정을 짐작하는 본능 때문에 좀더 깊은데로 내려가서 헤엄쳐가는 일도 삼가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바다속은 그래도 정지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조류에 의해서 바다 위와는 달리 끊임없이 숨쉬며 움직여가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누군가가 엇비슷하게 노래했던가. 세상 떠나기 직전의 임제(臨濟)였던가.

흐름따라 머물지 않는 도리를 묻는다면 참된 살림 가 없음이 그와 비슷하다고 말하리(沿流不止問如下 眞照無邊說似他)

아무튼 바다 위 안개속은 일체 한마디 말은 없었다.

인담이 그런 안개속에서 딱 한번인가 들린 어떤 소리를 뒤쫓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인담으로서는 낚싯줄의 찌가 한번 움직였다는 착각 때문에 낚싯대를 잡고 여차하면 끌어 올리려는 것처럼 긴장하는 것 같았다.

드디어 그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그 소리에는 힘이 다 빠져 있었다.

인담이 벌떡 일어나 재빨리 낙배 매어둔 곳으로 갔다. 가다가 바위끝에 발등을 다쳐 피가 났지만 그런 것을 알게 될 여지도 없었다.

그는 안개속의 그 소리 난 곳을 짐작하며 노를 저었다. 노젓는 소리만이 그에게는 초조함과 함께 가장 마음 든든한 이웃이었다.

"어느 쪽이요?"

라는 인담의 큰소리가 보내어졌다. 하지만 대꾸가 없었다.

그는 더럭 겁이 날만 하였다. 동시에 그는 그 사람을 반드시 구조해야할 신념에 불탔다.

"사람 살려요."

이 말이 바로 그가 저어가는 배 뒤쪽에서 날줄이야.

그가 안개속을 뒷걸음해서 한 물체에 가볍게 충돌하였다. 한 물체란 꽤 큰 돗배였는데 뭍이 내려져 있었다. 바로 그 뱃전에 한 상투장이 사내가 늘어져 있는 것이 흡사 송장이었다.

배와 배를 비끌어 맨 다음 인담은 그 배로 건너가 사내의 숨결을 짚어보았다. 숨이 남아 있었다. 아주 세찬 손바닥으로 늘어진 사내의 따귀를 갈겨댔다.

어디 그 뿐인가. 명치 끝에 주먹을 앵겼다.

"어이쿠!"

하는 소리가 사내의 입에서 나왔다. 살아난 것이다.

"누구요? 당신 어디서 온 누구요?"

"상감마마가 승하하셨답니다. 소인은 개성인삼 잠상(潛商)이옵니다. 살려주옵소서."

인담은 낙배를 저어 사내를 구했다 "당신 누구요" "상감마마가 승하…소인은 개성인삼…"

이렇게 허물없는 사이의 말을 농반 진반으로 주고받는 것이 소석에게는 기이한 느낌이었다.

해묵은 부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스승이고 제자인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사람이 평등한 동료로서의 도반도 아님에 틀림없었다.

"가세나."

라고 우녀가 그런 소석을 불러 그들의 처소로 갔다.

인담은 이렇게 해서 한동안 먹고 자고 할 따름이었다. 마치 무욕도량의 한 심심하기 짝이 없는 가축이라도 될 것 같이.

바다안개가 자욱한 저녁무렵이었다. 저쪽 안개 속에서 문득 어떤 소리가 먹먹하게 들려왔다.

안개에 눌린 것 같은 바다는 마치 연주 직전의 어전(御前) 궁중 아악공(雅樂工)

그림 · 조향숙

좋은 책의 산실, 우리출판사가 권하는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시리즈 탄생!

불교와 역사의 만남, 깨달음의 대하를 온몸으로 헤쳐나간 고승들의 치열한 삶의 역동기!

※ 계속 발행됩니다.

「한글세대를 위한 고승의 발자취」(전10권) 시리즈의 특징
1. 해당 인물의 시상을 친공한 한글세대 작가들이 집필한 본격고승평전
2. 방대한 자료조사와 장기간에 걸친 집필
3. 한글세대를 위한 이해쉽고 정확한 문체 사용
4. 깨달음과 학문의 금자탑을 쌓아올린 큰스님들의 거룩한 생애를 현대적으로 형상화한 평전
5. 한국 불교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고승 총망라
6. 주인공 소개 및 연표, 날말 찾아보기 등 참고사항 첨부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열리고 — 김시습 편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 보조국사 지눌 편
떨어져도 큰산스님 남는 스님 — 성철 스님 편
풍금치는 큰스님 — 용성 스님 편
허공에 매달린 물병 — 부설거사 편
하늘이여, 땅이여 — 이차돈 편

열린기획, 앞선 디자인, 생명력있는 작품. 한글세대에게 자신있게 권합니다.
1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열리고/김시습 편
2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보조국사 지눌 편
3 떨어져도 큰산으로 남는 스님/성철 스님 편
4 풍금치는 큰스님/용성 스님 편
5 허공에 매달린 물병/부설거사 편
6 하늘이여, 땅이여/이차돈 편
7 부처눈에 부처, 돼지눈에 돼지/무학대사 편(근간)
8 푸른 암자의 노래/초의선사 편(근간)
9 못구멍 없는 소가 되어/경허선사 편(근간)
10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서옹화상 편(근간)

날마다 좋은날

지묵스님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지묵 지음/신국판/양장본/값6,000원

날마다 좋은날의 제도록 사는 일이 즐거워 생활합니다.
날마다 좋은날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313-5056
팩스: 393-9696

• 지금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양장본 / 각 230면 내외 / 각권 6,000원

우리출판사 전화: 313-5047, 313-5056 팩스: 393-9696